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6~9/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성전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2	우란분재	편집부	조계종출판사
3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일아 역편	민족사
4	우리말 법화경	편집부	운주사
5	매일 108배 자비도량참법	행복문화연구소	붓다스쿨
6	부모은중경(큰글씨 한글경전)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
7	붓다에게 물어봐	박영동	도서출판해조음
8	정목 스님의 하루명상	정목	수오서재
9	관무량수경	김현준	효림
10	밀어붙여라(K-Culture의 정수 수불선사의 간화선)	수불	도서출판해조음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싯다르타	헤르만헤세/박병덕	민음사
2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보리도차제광론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4	체계불학	김성철	오타쿠
5	인생이 흔들릴 때 열반경 공부	자현	불광출판사
6	중관학 특강	김성철	오타쿠
7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8	초기불교 입문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9	한글 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10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그림 동화로 만나는 부처님 전생담



숲속 동물들의 마음 수업
글 · 그림 박혜원
담앤북스
1만9000원

'어린이 눈높이' 자타카 5편
독후 활동으로 마음공부 안내
섬세한 필치의 삽화 온기 전해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화를 참지 못하거나 친구를 질투하고, 무엇이든 독차지하려는 아이에게 원론적인 훈계나 부처님 가르침은 와닿지 않기 마련이다. 이럴 때 동물들의 이야기를 빌려 마음을 다독여보는 건 어떨까?

〈숲속 동물들의 마음 수업〉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불교 경전 〈자타카(본생담)〉 중 다섯 가지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그림 동화다. 미국에서 산업디자인과 순수미술을 전공한 박혜원 작가의 첫 그림 동화책으로, 부처님이 전생에 여러 동물로서 마주했던 순간들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돕는다.

각각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흉내 내고 싶었던 마음부터 용기를 내야 했던 순간,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은 기억, 그리고 서로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화해의 순간까지 다양한 서사를 다룬다.

'여우와 사자 가죽'은 사자 가죽을 뒤집어쓴 채 숲속 동물들을 속이던 여우가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참된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린다.

'고슴도치의 숲'은 작은 소리에도 가시를 곤두세우던 고슴도치가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려움 앞에서 평정심을 찾는 법을 전한다.

'사슴과 까마귀, 그리고 거북이'는 위기의 순간, 힘을 모으는 세 친구를 통해 연기와 우정의 가치를 일깨운다.

'금빛 사슴'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 앞에서도 미움 대신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황금 백조'는 지나친 탐욕을 경계하고, 현재 가진 삶에 감사하는 자세를 각각 보여준다.



박혜원 작가의 '금빛 사슴'. 그림 제공=담앤북스

저자 박혜원 작가의 그림은 이야기에 온기를 더한다. 작고 힘이 없음을 슬퍼하는 여우와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힌 고슴도치, 배신자에게 용서로 응한 사슴의 눈망울까지, 장면마다 다양한 감정을 전하는 섬세함이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각 이야기 끝에는 '생각해 보아요', '몸으로 따라 해요', '쪽지를 써 보아요' 등 독후 활동을 배치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에 답하고 동작을 따라 하며 이야기 속 교훈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이끈다.

다섯 편의 글과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은 타인을 흉내 내지 않아도 스스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위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침착함,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인연의 고마움, 미움 대신 용서와 믿음으로 상대를 품어주는 성숙한 마음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전 해인사 승가대학장 종묵 스님은 "뛰어난 그림과 깔끔한 글로 부처님 말씀을 즐겁게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책을 추천했다.

박혜원 작가는 "두려움을 이겨 내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동물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성장과 닿아 있다"며 "두 아이를 키우며 말보다 이야기가 더 깊이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배웠기에 아이들에게 〈자타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천 년을 건너온 〈자타카〉의 이야기가 오늘의 아이들 마음에도 닿아,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처님 가르침, 교실을 바꾸다



불교로 가르치다
시드 브라운 지음
신희정 옮김
운주사
2만2000원

연기 사상 · 수행 전통, 교육 접목
'매일 명상' 등 현장 실천 과제 제시

〈불교로 가르치다〉는 미국의 불교학자 시드 브라운 미국 서와니대 교수가 불교 사상과 현대 교육학의 결합을 모색한 교육 지침서다. 30여 년간 강단을 지켜온 저자의 교육적 성찰을 바탕으로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짚고,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과 수행 전통을 교실에 접목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불교와 환경' 수업 등 저자의 대학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총 9장에 걸쳐 현장의 실천 과제를 다룬다.

저자는 교사들의 매일 정해진 시간의 명상이 학생들에게 더 집중하게 하고, 주의가 산만한 학생을 수업으로 돌아오게 하는 등 교육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뱉으며 진정성과 환영을 담은 미소 짓기' 등 저자가 제시한 구체적 지침이 학생의 흩어진 주의를 '지금-여기'로 자연스럽게 돌려놓는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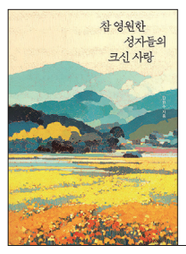
이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 인해 자애 명상을 실천했던 경험을 전하며, 자애 명상이 교사와 학생의 두려움과 증오를 극복하도록 돕는 방안임을 보여준다. 이를 꾸준히 실천할수록 교실에서 더 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자애로움이 충만한 교사가 교실에서 '날뛰는 코끼리'를 멈출 수 있으며 매일 가르침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애와 이해심을 기르는 방식으로 경청의 자세를 익히게 한 수업 사례도 제시한다. 이밖에 부처님이 여성 승가를 성립시키며 타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례를 들며 가르침의 상호성을 강조하고, 교사 역시 학생의 질문을 통해 배우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처럼 교실 내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을 조명하며, 이것이 교육의 본래 가치를 되찾아주고, 교사의 성장을 이끄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한다.

배희정 기자

'바치는 수행' 실천한 삶



참 영원한 성자들의 크신 사랑
김원수 지음
김영사
1만6800원

백성욱 박사 제자 최의식 일대기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여정 그려

한국 최초의 독일 철학박사이자 내무부 장관, 동국대 총장 등을 지낸 고(故) 백성욱(1897~1981) 박사. 그는 출가 후 환속해 〈금강경〉 독송의 중요성을 알리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 가르침을 올곧게 이어받았으나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가 있으니, 바로 한국은행 출납부장을 지낸 고(故) 최의식(1918~2015) 선생이다.

김원수 백성욱박사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은 두 사람의 인연과 수행을 담은 〈참 영원한 성자들의 크신 사랑〉을 펴냈다.

저자가 1990년 무렵부터 20여 년간 최의식 선생 곁에서 지켜본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일대기다. 실제 인물과 일화를 토대로 대화와 장면을 재구성한 넓은 의미의 팩션(Faction) 형식을 취했다.

책은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 아래 평범한 청년 최의식이 철저한 계율과 하심(下心)을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는 여정을 그렸다. 1943년 치악산 상원사에서 백 박사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해 간 과정을 일대기 6편과 저자의 단상으로 담았다.

특히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을 지남(指南) 삼아 평범한 일상을 수행의 장으로 바꾼 최의식의 삶은, 진정한 수행자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실천으로 완성됨을 보여준다.

최의식이 귀 기울인 스승의 핵심 가르침은 '바치는 수행'이었다. 번뇌나 위기가 닥쳤을 때 감정을 억누르거나 해결하는 대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그대로 바쳐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백 박사는 〈금강경〉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으로 만들겠다(我皆令入 無餘涅槃 而滅度之)'는 구절을 실천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등 실재하지 않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수행을 거듭하면서, 최의식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고 갈등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체화했다.

백 박사는 맹목적 기도가 이기심의 발동일 뿐이며, '섬기는 마음'을 낼 때 모든 것이 이기심이 만든 허상임을 깨닫게 됨을 강조했다.

나아가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대승의 길'이야말로 참된 수행이며, 이 마음을 낼 때 고통이 사라지고 수행이 발전한다고 역설했다. 또 마음 닦은 대로 삼라만상이 펼쳐지며, 인과응보의 법칙은 지극히 엄정하다고 당부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올곧이 이어받은 최의식은 평생 오계(五戒)를 엄격히 지키며 재능을 과시하거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 봄비는 지하철에서 발이 밟혀도 먼저 사과할 정도로 겸손이 몸에 밴 그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 대하듯 하며 스스로를 낮췄다.

그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성실히 따른 결과 나쁜 일도 결국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이 책은 교보문고 7월 4주차 베스트셀러 5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사 측은 "평범한 한 사람이 수행을 통해 거듭나는 과정과 그 가르침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배희정 기자

